



2003년
8월 15일
제 60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축복에 감사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http://cafe.godpeople.com/ysk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제1회 직장선교 성장을 위한 심포지엄 - 직장복음화 및 춘천성시화를 위한 전략발표 -

춘천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경숙 장로)는 7월 22일(화) 오후 7시 강원농림지역본부에서 직장복음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1회 심포지엄을 열고 46개 직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매년들의 발표를 듣고 그 내용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훌륭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므로 직장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더하게 되었다.

동 연합회는 1990년 4월 창립 이래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나 예상밖으로 모든 직장선교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참여율기도 뜨거웠다.

1부 예배는 연합회 부회장 김용일 장로의 사죄로 전신장 부회장의 대표기도,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임신영 목사(동부

교회)의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특성을 보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강원농림지역본부장 홍재표 장로의 인사말씀 후 임신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심포지엄은 연합회장 민경숙 장로의 진행으로 매년들의 발표를 듣고 그 내용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훌륭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므로 직장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더하게 되었다.

발표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한 양질의 자료를 디딤돌로 삼아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직장선교회의 기능: 신성장 목사(춘천열린교회)
- 직장선교의 목표: 김철수 장로(연합회 수석부회장)
- 직장선교 사례발표: 공영준 집사(강원도종합합심협연원)
- 크리스찬 직장인의 자세: 조정일 장로(종정교회)
- 기도과 영적전투: 박인관 목사(광명길교회)

가평 승동기도원 제4회 하계수양회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는 지난 7월 24~26일까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승동기도원에서 전교인 하계수양회를 개최하고 성령충만 확신, 승리의 삶,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예배와 강론, 실습 등 교육과 수련을 실시했다. 하계수양회에 참여한 제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작은천국 만들기 행복한 부부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강을 한 이회한 목사(지구촌가정사역훈련원장)는 현재 췌장암, 간사, 기동TV교경내, 평화침례교회 담임으로 복음적인 가정, 건강한 생활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특강을 통해 부부생활이 복음으로 더욱 튼튼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된 시간이었다.

■결혼의 현실 "우리 가정에서의 부부의 현실은 어떠한가?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한 부부를 위한 12가지 행복지침 "배우자의 어린시절을 이해하라.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사랑하라 "우리 부부의 하루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아내들이! 남편은 가정이다.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배우자들을 위한 훌륭한 성직파트너가 되라. 중요한 부부행복의 요소이다. ■잔소리하지 말라.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을 경험케 한다. ■취침전 3분간 손잡고 기도하라! ■무질제한 TV시청은 행복의 장애물이다. 선택시청하라. "우리 가정에서 TV시청시간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아내와의 대화시간 ■가정은 인간교육의 최후의 학교이며 교회임을 잊지말라. ■남편들이!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계획하라. ■부부싸움은 또 하나의 의사소통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면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만다.

2003년도 장로교 주일 연합예배

춘천지역 한국장로교연합회(회장 사공정 목사)는 지난 8월 3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춘천동부장로교회 성전에서 장로교연합예배 춘천지역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독교총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하는 "장로교 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장로교 연합을 위한 자리에 1백여 장로교회의 목회자들과 수천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한층된 모습으로 하나된 앞에 영광을 돌렸다. 대회장 문정섭 목사(사우동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심계명 교육과 회중이 함께 한국장로교회 공동신앙 낭독을 했으며 부회장 황병호 장로(제일교회)가 대표기도 드렸다. 서기 김종익 목사(광명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춘천교회 남성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초청강사로 래운한 박준호 목사(서울충신교회)의 담임은 "오직 믿음"(히4:12-13)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통해 연합예배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회계 강동구 장로(동부교회)가 봉헌기도, 춘천교회 슬라스트 김향란 교수(국민대)의 특별찬양 후 역대회장 연대섭 목사(한빛교



회), 임신영 목사(동부교회), 장효근 목사(동성교회), 박상호 목사(제일교회)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 춘천지역을 위한 특별기도 시

회를 후원한 방학에서 없이 방학하고 있다. 또한 통일 대비의 통일정책, 북한교회 협력지인, 통일후의 미래대비, 남한에 이주한 북한동포지원 등 단일화한 창구가 없다. 우리는 정부와는 물론 방기독교계와 협력하여 하나의 통일정책을 만들어 이에 공동대처한다. >사회자:우리 한국장로교회는 개세기 지향의 공동체로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 >회장:세계회의 경정속에서 온 세계가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 교회도 이 경정속에서 몸무리를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의 담임문제는 고소득 시대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와 약화시켜 정체가 들어있다. 교회의 노령화, 청소년 문제, 노인, 여성, 가정, 영성사회의 대치문제 등 각종 탈자문화에서의 교회보호와 영성회복운동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한다. >사회자:우리 한국장로교회는 교회강신을 선행하며 부흥과 비리를 추방한다. >회장: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계에 이른 부흥과 비리로 만연되었으며 타락한 각종 문화는 국민전체를 오염시켰다. 정치 결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썩어있는 불안을 안고 있으며 교회도 본래의 경건과 영적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치유와 교회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영성회복운동과 경건, 절제, 나눔, 사랑과 봉사로 교회강신을 선행하여 부패한 연연의 사명을 감당한다. >대담자:우리 한국장로교회의회는 이상과 같이 한국장로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공동체임을 선언한다.

3 춘천제일교회 전교인 수



춘천 한국전력신수회 창립예배

한국전력 춘천지점에서는 지난 8월 5일(화) 춘천한전회의실에서 신수회원 15명과 관내 동면교회 박순용 목사, 화계중앙교회 김영규 목사, 춘천군 신수회장 이상순 장로, 한전 강원지사 신수회장을 초청하여 "한전신수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큰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렸다. 예배를 마치고 애환을 나누며 앞으로의 신수회 운영에 관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오예배와 관내 직장선교회와 함께 연합예배 등의 여러 신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전직장선교회와 창립되므로써 기존의 춘천군 선교회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춘천지역 직장마다

신교회의 창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춘천한전신수회의 창립은 여러 회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특히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경정회장인 김남철 장로와 춘천 군 신수회장 이상순 장로의 협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까지 직장인 크리스찬으로서 교파를 초월한 진정한 연합을 위해 묵묵히 수고해 온 일꾼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 제1대 임원선출 ▲창립예배 준비위원장 김남철 장로 ▲회장 임규현 장로(춘천선교장로교회) ▲총무 이병용 집사 ▲서기 김태용 집사 ▲회계 장성희 집사

예수제자운동(JDM)

세계제자훈련원(WDTI) 건축

2003년 9월 착공 ~ 2004년 7월 준공 예정

신축 안내

- 소재지: 춘천시 동면 만천리 602-2
- 건축면적: 826.12㎡(250.33평), 연면적: 2,320.42㎡(703.16평)

A동: 1층	강의실, 교수실	B동: 1층	침전실, 강의실, 숙소
2, 3층	세물실, 유아실, 방송/조명실	2층	숙소
		3층	도서실/컴퓨터실

예수제자운동(JDM)은 지난 26년동안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계제자훈련원(WDTI)은 세계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며, 전세계 미전도종족과 펄스 사역자를 육성해내기 위한 전문 훈련 센터입니다.

한국 이사장 김창환 목사
총련원 이사장 신승배 장로
건축본부장 임진실 장로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 WDTI 건축본부 (033)242-2819, 243-6701~4

춘천 승리기도원 개원

- 동면장로교회 구 성전을 기도원으로 -

춘천 동면장로교회(김성진 담임목사)는 동면 지내2리 355-1번지 소양강 국도변(춘천죽림산 입구)에 위치한 구교회에서 지난 7월 21일(월) 오전 11시 개원하고 당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 개원 축복대성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성도들이 기도원과 교회, 지역사회와 춘천성서화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대성회를 이뤘다. 우리 지역에는 건강하고 영력있는 기도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승리기도원의 개원으로 응답과 치유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 춘천 시민과 교회가 변화되고 성서화로 진일보하게 될 것

을 믿는다. 춘천 승리기도원은 이정수 목사(경기기도원교회)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며 춘천 건강장로교회 최춘배 목사가 원목을 담당하고 전문 찬양진도사와 반주자를 두고 있다. 김성진 목사는 구교회당 시설을 기도원으로 제공하고 춘천지역 초교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개원 예배에 수많은 목회자 및 교계지도자들이 1백여 초교파 신도들이 예배 드리고 축하했고 기념 촬영과 함께 인근식당에서 마련한 식사를 하며 담소했다.



기독교인 축구연합회 창립 준비

- 교파를 초월한 개교회 축구팀 연합 -

오는 9월 중순경, 교파를 초월한 춘천 지역 크리스찬 축구인들이 뜻을 모아 기독교인 축구연합회를 창립한다. 춘천제일장로교회와 소양강성경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축구팀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결성하게 되었으며 교파가 다양한 기독교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축구연합회 조직

을 위하여 성서화목요기도모임 대표인 신종철 장로와 마나하임축구선교단 감독 정학수 김사, 여러 교회축구팀의 멤버들이 앞장서서 바쁘게 뛰고 있다. 앞으로 춘천 성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형교회로서 헌신 봉사하는 신앙생활로 건강한 교회, 시민,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Mission Perspectives(MP)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 선교역사의 여러 시대들, 선교역사의 여러 시대 (역사적 관점 6과·7과·8과)

지난 호에서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번 호에는 선교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를 살피고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소망이 됩니다. 즉 역사를 살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살피므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역사적 퍼스펙티브는 개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며 선교하셨는가를 알아보고 역사 속에 나타난 선교의 비전과 각 시대마다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의 주제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단체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과의 제목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입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세우신 목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과에서는 랄프 윈터가 예기한 선교의 네가지 메카니즘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감, 비자발적으로 감, 자발적으로 감, 비자발적으로 감 등 네가지 형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선교의 열시대에 이러한 선교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가 가난한 땅으로 오는 것이나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모라비안 교도가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감'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나 요나 그리고 바리새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를 개종시키는 것들은 '비자발적으로 감'에 속합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적 의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선교에도 이러한 메카니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스바역할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이나 모압 여인 롯이 유다로 옮긴 것들은 '자발적으로 감'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유대기 바벨론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 강제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 이방인들, 로마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략해 정착하게 된 것,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를 데려온 것들은 '비자발적으로 감'에 속합니다. 이상과 같은 네가지 선교의 메카니즘이 현대의 선교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랄프 윈터박사는 역사를 4000년으로 보고 그 역사를 각각의 2000년으로, 그리고 각 2000년을 400년 단위로 나누면서 구속사의 10시대로 구분합니다.

구속사의 열시대중 앞의 2000년간의 시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나오는 다섯시대로서 축약시대(BC2000-1600), 애굽포로시대(BC1600-1200), 사사시대(BC1200-800), 열왕시대(BC800-400), 바벨론포로생활 이후 시대(BC400-0)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간을 다시 다섯 시대로 구분하여 로마인선교시대(0-400년), 야만인 선교시대(400-800년), 바이킹 선

교시대(800-1200년), 사라센 선교(?)시대(1200-1600년), 땅끝까지 선교시대(1600-2000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역사 가운데 네가지 선교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네 번째 시대인 사라센 선교(?)시대는 바이킹들이 북음의 반격에 항복하게 되자 그들이 역사상 가장 왜곡된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들은 힘에 의해 성지를 탈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이었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감'의 유형을 통해서 열도를 파괴하고 정복해 나갔는데 이로 인해 사라센이라 불리는 무슬림들에게 북음의 축복을 전하는데는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이들은 기독교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고 지금까지도 이슬람권에 북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되 쉽고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혹은 물질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북음의 진보를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를 담당했던 주제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선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은둔주의로서의 수도원운동이 아닌 율리우스의 수도원운동이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라비안 교도들은 개신교 선교의 첫출발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7과와 8과는 랄프 윈터가 말한 네사람, 세시대, 두 전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목사
MP코디네이터
(강원도장로교회)



랄프 윈터가 말한 세 시대는 해안선 선교시대, 내륙선교시대, 미전도종족선교시대로 나누어집니다. 해안선선교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윌리엄 캐리였고, 윌리엄 캐리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선교에 대해 아직 논하지 못했을 때 선교단체를 세우며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로 해안선을 따라 북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음이 편안하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에 들어가 보았을 때 내륙에는 북음이 전혀 전달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륙선교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내지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룬 타운센트와 도날드 맥가브란을 통해 같은 나라 가운데에도 종족이 다를 때 북음이 전혀 전달되지 못함을 보게 되면서 각각의 종족별로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전도종족 선교시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카메룬 타운센트와 같은 이들은 모두가 선교지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는 역참수령의 소유자들였습니다. 특히 데이비 리빙스턴은 선교를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선교의 전략적 관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광장로교회 9월 새성전 완공예정

성광장로교회(김광국 담임목사)는 오는 9월 14일경 안마산 복대지락에 자리잡은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9월 21일경 일당예배와 함께 헌사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다. 성도들과 건축담당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값진 땀의 결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 성광교회 성전은 앞으로 춘천의 심장부를 내려다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다.

건축위원회와 세교회이사준비위원회는 내부구조와 집기배치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교회의 진입로와 외부 조경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Tel: 252-4217
(제 공 http://www.chsungkwang.com/성광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임택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0-1
교회 사무실 : Tel. (033)261-6823

믿음과 기도로 치료하는

영광한의원

원장 이용규 장로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춘천시 후평2동 801-2번지 / TEL. (033)251-2003~4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알로에마임

대표 이판호 원사 운영 순제사

기초화장품☆색조화장품☆메이크업☆진강보조식물☆다이어트식물
춘천시 효자3동 756-3번지 보훈지청전편 TEL. (033)242-2665~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교회사무실 ☎(033)253-2741

베드로선교센터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 조은재 목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기정희 원사

춘천시 효자2동 312-1 법원 옆 ☎253-5171

국내 최고의 육질 최고의 맛! 최저의 가격!

이라! 생고기숯불갈비 뷔페

대표 윤기원 · 유주연 (춘천서로사망장로교회)

춘천시 효자2동 152-7 / TEL. (033)255-9249, 255-9250, 011-871-6770
(이라뷔페 춘천제인사업본부 체인점 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사공 정

춘천시 퇴계동 669-2번지(퇴계동사무소 옆)
교회사무실 ☎ 257-2001 FAX. 257-2002 / 복사관 251-2002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이슬몬테소리선교원

한글·수학·영어·예배·성구암송·학습능력에 따른 교육

■ 영아부(0세~3세) ■ 유아부(4세~5세)

■ 유치부(6세~7세) ■ 초등부(1학년~6학년)

원장 최주라 권할
(순복음하나교회)

교육상담 ☎(033)255-0507, 019-292-3183
춘천시 후평1동 536-28번지 새경3차A 맞은편 한림주점